

## 성교 손상 2례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최영하 · 박정옥 · 김재웅 · 김종옥 · 이승호

### 서 론

성교에 의해서 성기 또는 그 인접부위의 조직이 손상을 입었을 때 성교손상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성교에 의한 열상은 매우 드물게 일어나며, 성교횟수가 적은 미산부 뿐만아니라 경산부에서도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야간에 나타나며 심한 질출혈을 주소로 내원하며, 또한 환자는 심한 수치감과 불안한 정신적 상태에 있으므로 주의깊게 관찰하지 않으면 간과할 수 있다. 따라서 질출혈의 감별진단에서 성교손상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저자는 경산부로서 성교후 질후벽의 중앙부 열상을 입고 shock에 빠진 1례와 경산부로서 성교후 질후궁통열상 및 골반복막의 일부 열상을 입은 1례를 경험하였기에 문헌고찰도 함께 하였다.

### 증 례

#### (증례 1)

환자: 25세 G3, P2.

가족력: 특기사항 없음.

기왕력: 환자는 평소 건강하였고 월경은 순조로왔고 1년전 난관결찰술을 시행받았다.

현병력: 새벽 0시30분경 성교 직후 심한 질출혈과 오심구토를 주소로 새벽 3시경 본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였다.

입원시 소견: 의식은 명료하였으나 안면은 창백하였고 혈압은 120/60 mmHg, 맥박은 분당 92회, 체온 36.8°C, 호흡은 분당 22회였으며, 흉복부에 이상은 없었고, 자궁은 정상 크기였으며 후질벽중앙부에 길이 2.5cm, 깊이 1cm의 열상이 있었고 입원 당시 혈액소견은 Hb 11.7gm/dl, Ht 36.2%, WBC 7,900/ $\mu$ l이었고, 내원 직후 shock에 빠졌으며, 800 cc의 전혈 수혈과 chromic cat gut으로 봉합후, 항생제

투여후 다음날 퇴원하였다.

#### (증례 2)

환자: 29세 G4, P2.

과거력: 특기사항 없음.

가족력: 특기사항 없음.

현병력: 분만후 7개월만에 새벽에 성교후 심한 질출혈과 하복통을 주소로 본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였다.

입원시 소견: 의식은 명료하였으며 혈압은 110/80mmHg, 맥박은 분당 96회, 체온은 36°C, 호흡은 분당 20회였고, 흉복부에 이상은 없었고, 자궁은 심한 하복통으로 촉지할 수 없었으며, 자궁경부 직후방 질후궁통부에 황으로 3cm정도의 열상이 있었고 골반복막의 일부도 열상이 있었음. 혈액소견은 Hb 13.2gm/dl, Ht 38%, WBC 22,000/ $\mu$ l이었고, 치료는 전신마취하에 chromic cat gut로 복막 열상부를 continuous lock 봉합후, simple mattress로 질벽열상을 봉합하였고, 항생제 투여후 2일째 퇴원하였다.

### 고 찰

성교에 의해 일어나는 질의 열상은 질 인접부 또는 질궁통 특히 후궁통에 잘 일어난다. 초회 성교 및 성교 횟수가 적은 젊은 여성에서는 질입구 인접부에 열상이 많으며, 경산부 등 성교에 익숙한 여성에서는 질궁통에 열상이 많다. 질하부와 질상부에 동시에 열상이 일어나는 경우는 열상의 확장에 의해서 일어난다. Fish<sup>1)</sup>의 보고에 의하면, 원인이 알려진 54례중 비교적 성교경험이 많다고 생각되는 34례중 32례에서 질궁통부 열상이, 2례에서는 질벽 열상이 있었다. 또한 성교경험이 적다고 생각되는 19례중 13례에서 질궁통부 열상이 6례에서는 질입구 및 질벽 열상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그의 국내에서는 초회 성교나 성교경험이 적은 미산부에서는 질벽열상<sup>2, 3)</sup>

과 궁륭부 열상<sup>1,4)</sup>이 각각 보고되었고, 성교경험이 많다고 생각되는 경산부에서의 질벽열상<sup>6)</sup>과 궁륭부 열상<sup>2,5)</sup>이 보고되었다. Wilson과 Swartz<sup>7)</sup>의 보고에 의하면, 질상부 25례, 질하부 12례로 상부가 훨씬 많다. 대부분의 보고에 의하면 질벽열상의 좌우측의 차이는 없으나, 질상부 열상에서는 차이가 있는데, Rahm<sup>8)</sup>의 보고에 의하면 15례의 75%가 질상부가 일어났으며 이중 1례만 좌측 질궁륭부에서 일어났고, 10례에서 우측 질궁륭부에서 일어났다. 질궁륭부 열상의 대부분이 우측에 국한됨은 해부학적으로 질상부는 전외방으로 배열되어 광인대의 저부를 형성하고 있는 결체조직만으로 지지를 받고, 우측이 좌측보다 넓어 음경의 귀두에 의해 성교중 더 잘 팽창되기 때문이다. 본 증례 1에서는 질후벽 중앙부의 열상으로 국내보고<sup>2-6)</sup> 및 Wilson과 Swartz,<sup>7)</sup> Rahm<sup>8)</sup>의 보고와는 다른 특이한 점이었고, 증례 2에서는 골반복막 열상이 있었는데, Wilson과 Swartz<sup>7)</sup>의 43례중 2례에서 복막열상을 보고하였으나 드문 예였다. 원인은 첫째 생리적인 요인으로 소녀기의 발육부진, 갱년기나 노년기의 위축, 임신 및 산욕기 등이 있으며, 둘째로 병적 요인으로 최근 시행하였거나 오래된 부인과적 질식수술의 반흔, 기형, 외성기의 강인, 자궁의 위치이상 및 형태이상(자궁후굴), 질경련, 방사선 치료후<sup>9)</sup> 등을 들 수 있고, 그외의 요인으로 강간, 난폭한 성교, 이상 성교위, 성적 흥분의 이상 향진, 심한 음주시 성교, 불안 상태, 성적 무지, 성기 불균형, 음경의 과대 등을 보고하고 있다.<sup>1-3, 10)</sup> Wilson과 Swartz<sup>7)</sup>의 보고에 의하면 강간에 의한 경우가 7례, 초회 성교가 6례, 폐경기 후가 6례, 임신기 또는 수유기에 4례, 난폭한 성교가 3례, 질내 이물질 삽입시 2례, 음주시 7례, 혼합성교가 1례였으며, 생식기 이상이 7례로 자궁절제술후 질강이 짧아진 경우가 3례, 질벽절개술후가 1례, 질내 반흔 2례, 선천성 기형이 1례였다.

국내에서 비교적 많은 경우를 경험하여 성교 손상의 원인을 분석한 조 등<sup>11)</sup>의 보고에 의하면 10례중 강간에 의한 경우가 4례, 이상 성교위에 의한 경우가 2례, 산욕기 내지 수유기에 발생한 경우가 2례, 우연히 발생한 경우가 2례로 강압이나 성적 미성숙 또는 이상 성교위에 의해 많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임신중 또는 수유기에 질열상이 일어나는 것은 임신에 의해서 생식기 조직의 약화가 증가되기 때문이며, 폐경기후의 위축시 질강의 길이가 짧아지고, estrogen의 감소로 질점막이 얇아지고, 질근육의 팽창성과 유연성의 감소로 잘 일어나며,<sup>10)</sup> 자궁절제술의 결과로 질강의 길이가 짧아졌을 때 일어날

수 있으며, 특히 수술후 조기의 성교로 질원개의 봉합면이 쉽게 파열될 수 있다. 질경련에 의해서도 질강의 길이가 짧아지고 또한 좁아지므로 질열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한다. 난폭한 성교시에는 여성측의 복압의 증가로 질궁륭부가 강하하므로써 음경을 깊게 삽입하였을 때 질궁륭부의 신축성의 감소로 후궁륭부의 파열이 올 수 있다. 이상 성교위에 의한 질손상은 특히 음경이 깊게 삽입될 수 있는 Dorsal decubitus with hyperflexion of thigh and sitting position 위치에서 잘 일어난다고 한다.<sup>11)</sup> 본 증례에서는 모두 가정주부로서 경산부이며 성기이상이나 성교시 난폭한 성행위 등 상기한 원인을 환자와 남편을 통해서 찾아볼 수 없었다. 발생연령은 전 연령층에서 모두 발생하나 성교 손상 80례를 보고한 藤井 등<sup>12)</sup>에 의하면 19세이하가 12례(15%), 20대가 46례(57.5%), 30대가 18례(22.5%), 40대가 3례(3.7%), 50대가 1례(3.7%)였다. Fish<sup>13)</sup>의 보고에 의하면 19세이하가 9례(16.7%), 20대가 23례(42.6%), 30대가 10례(18.5%), 40대가 4례(7.4%), 50대 이상이 8례(14.8%)로 20대가 가장 많고 40대 이상이 적다. 조 등<sup>11)</sup>의 10례에서도 19세이하가 2례이고, 20대가 7례로 가장 많고, 30대가 1례였다. 본 증례는 모두 20대 경산부였다. 진단은 자세한 기왕력의 문진과 질경검사로 확인할 수 있고, 성교 손상은 일반적으로 야간에 발생하며, 증상은 출혈 및 동통으로 심한 경우에는 shock에 빠질 수 있으며, 본 증례 1에서도 환부의 손상이 심하지 않음에도 손상후 처치의 지연에 따라 shock에 빠진 예여서 조기발견 및 조기처치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었다. 감염시에는 발열, 자궁주위염, 자궁방결합조직염, 때로는 골반복막염을 일으킬 수 있다. 극히 드문 경우이나 심한 출혈로 인한 출혈시와 2차 감염에 의해 사망한 예도 있다.<sup>11)</sup> 치료는 방치해도 자연지혈되는 것으로부터 gauze로 압박지혈 시키거나 출혈이 계속되어 봉합을 요하는 경우까지 다양하며 특히 봉합은 신속한 지혈과 감염의 기회를 감소시킨다. 심할 경우 자궁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다.

Fish<sup>13)</sup>의 예중 1예에서 질후궁륭부의 열상으로 자궁절제술을 시행한 보고도 있다. 항생제 투여는 꼭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예후는 양호하다. 본 증례에서도 봉합, 수혈 및 항생제 투여로 경과는 양호하였다.

## 요 약

25세 경산부에서 성교후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질후벽중앙부의 열상으로 shock에 빠진 1예

와 29세 경산부에서 성교후 질후궁릉부 열상 및 골반 복막 일부 열상의 1예를 경험하였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 참 고 문 헌

1. Fish, S. A. : Vaginal injury due to coitus. Am. J. Obstet. Gynecol., 72(3) : 544-548, 1956
2. 李升鎬 : 性交 損傷의 2例. 大韓產婦會誌, 21(7) : 587-588, 1978.
3. 조상원, 김일선, 이제봉, 유형재, 이종현 : 性交 損傷 10例, 大韓產婦會誌, 27(12) : 1668-1671, 1984.
4. 丘秉參, 李根容, 尹相烈, 宋柱天 : 性交로 인한 穹窿窩部 穿孔 2例. 大韓產婦會誌, 9(12) : 51-52, 1966.
5. 金在洙, 係昌憲, 全道鎮, 李台鎬 : 性交 損傷의 1例. 大韓產婦會誌, 28(8) : 1158-1159, 1985.

6. 金東均, 朴永燦, 林永善 : 穹窿을 合並한 性交裂傷의 1例, 大韓產婦會誌, 6(9) : 73-74, 1963.
7. Wilson, F., and Swartz, D. P. : Coital injuries of the vagina. Obstet. Gynecol., 39(2) : 182-184, 1972.
8. Rahm, I. : Uber die Verletzung de Geburstable sub coitu. Acta Obstet Gynec Scandina-  
via, 6 : 28, 1927 (cited from 1).
9. Edward, D. : Coital vaginal vault laceration. Obstet. Gynecol., 40(3) : 451-452, 1972.
10. Peckham, B.M., and Shaio, S. S. : Signs and symptoms in gynecology. J.B. Lippincott Co. Philadelphia, 1984, pp. 396-397.
11. 藤井純一, 永松幹夫, 七島一雄 : 性交損傷의 4例 について. 産と婦, 26 : 120, 1959 (Cited from 5).

### - Abstract -

## Two Cases of Vaginal Injury due to Coitus

Young Ha Choi, Chung Ok Park, Jae Wung Kim,  
Jong Wook Kim, and Sung Ho Lee

*Department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College of Medicine, Yeungnam University  
Taegu, Korea*

Two cases of vaginal injury due to coitus are presented. One is the case of the laceration of mid-portion of posterior vaginal wall with shock and the other one is the laceration of posterior vaginal fornix and pelvic peritoneum. They are all in multiparity. And a review of literature on vaginal injury due to coitus is made briefly.